

교육자치 기능 강화에 노력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모든 분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간 인천교육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성원에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인천교육은 6개 평가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부진했던 학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교육은 발전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 단계 높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며, 우리 교육위원회도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상제와 균형, 정책질지와 대안제시 등 학생의 역할 수행에 총심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전년성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

힘입어 그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개발지역내 신설 학교 설립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6년도에 잘못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에서 시·도의회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위원의 혼합구성으로 교육위원 정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교육의 원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안 발의마저 불가능하게 하여 교육자치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

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의 독립적 지위 확보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서명운동, 토론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방문 및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발전과 지방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우리의 뜻에 인천시민 및 교육가족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8개월 동안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인천 교육발전 및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폭 넓은 여론 수렴과 눈높이에 맞춘 교육정책 추진 지원, 지역주민의 자아실현 및 일선학교 현장위주의 지원 행정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인천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발전이 국가 발전 동력이다

대망의 경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교육 가족의 기대 속에 창간되어 2010년 1월 1일자로 31호 지령을 맡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전문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해온 교육연합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육 발전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요, 동력이라는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1960년대 국민소득 70~80달러에서 현재 20,000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의 결과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한 사람 잘 키워내면 일 년에 1



류병태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또한 사람을 한 사람 잘못 키워내면 일 년에 경찰병력 100명을 증원해야 되는 사회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가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성과가 좌우한다는

사실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한 정론지로서 새롭게 태어난 교육연합신문이아말로 실로 그 의미와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올해 대망의 '백호' 해를 맞아 교육연합신문이 백년대계의 교육을 바르게 선도해 나가는 교육 정론지로서 힘찬 발전을 거듭해 나가도록 소망 오직 자신 성공이 삶의 이유요, 목적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자신 밋 바리자에 피땀 흘리는 학부모, 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이제 자신감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1994년 공보처가 미디어리서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과 주한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화 및 면접조사 결과 '한국인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 응답한 국민은 36.2%인데 비해 외국인은 71.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외국관광객에게 친절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62.2%, 외국인은 77.5%로 집계되었습니다.

관광지의 청결도와 관련 일반국민은 41.3%, 외국인은 80.0%가 '깨끗하다'고 응답해 외국인의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평가 항목이 없습니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리 국민이 질서를 잘 지키는 긍정적인 평가는 지적력층과 저소득층에서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한다는 평가는 대졸이상인 이영, 직업별로는 학생들이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관광지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지적력층, 고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자질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에서 이글은 시작합니다.

1980년대부터 필자는 우리 국민성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면성과 단결력, 자주정신, 질서, 정직성의 다섯 가지를 적어놓고 우리 국민의 특성을 풀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다섯 가지 모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90년대에 와서 긍정적 평가가 높아지는 것이 두드러졌고 2000년대에 와서는 긍정적 평가가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직도 질서와 정직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질서를 잘 지킵니까?' 라는 질문에 26.5%만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한국인은 정직합니까?' 라는 질문에 37.9%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신감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정직성과 관련하여 2001년 7월 리더스다이제스트 잡지에 재미있는



오대석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실장, 소설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잡지의 편집자들은 미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유럽, 아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라틴아메리카 여러 지역에서 유혹의 대상인 지갑을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길목에 떨어뜨렸다.

우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지갑이 되 돌아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1,100개 이상의 지갑을 '분실'했다.

모든 지갑에는 미화 50달러에 상당하는 각국의 지폐와 지갑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어서 습득자가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습득자가 지갑을 되돌려주기를 원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는 지갑을 거리와 공중전화 앞, 주차장과 레스토랑에 남겨두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앉아서 지켜보았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집어간 지갑의 44%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랐다. 정치 금메달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두 나라에서는 모든 지갑이 되돌아왔다.

전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람들은 나머지 세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뉴질랜드와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도 그랬다. <이하 생략>

잡지가 밝힌 지갑회수율은 노르웨이, 덴마크 100%, 싱가포르 90%, 호주, 한국, 일본 70%, 미국 67%, 영국 65%, 프랑스 60%, 네덜란드 50%, 독일 45%, 러시아 43%, 필리핀 40%, 이탈리아 35%, 중국 30%, 멕시코 21% 등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인들은 정직성에 관하여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2007년 8월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

이번에는 지갑이 아니고 세계 32개의 도시에서 각각 30대의 휴대폰을 슬쩍 떨어뜨려 놓아보았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되돌아온 것은 과연 몇 대나 될까요?

1위는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냐였고 29개가 돌아왔습니다.

이 도시는 조사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인구가 26만 7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위는 캐나다의 토론토도 28개가 돌아왔고, 3위가 대한민국의 서울로 27개가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직성면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정직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정직하지 않다고 불신을 조장해놓고 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남을 믿지 못하고 갈등과 빈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던 중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살아 왔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통교육(초·중등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합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문맹률이 가장 낮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을 가지고 판단한 자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우리만큼 단기간 내에 성과를 이룩한 예는 없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북돋우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관성 있는 학교 지원정책과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투명한 지원행정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항상 친절하고 역동적이며 청렴한 교감 감동의 으뜸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익재단과 단위학교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재단 1교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단위학교마다 특성화 과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중경하는 중부교육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교육은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통해 더욱 더 발전하는 세계 인류 서울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며, 그 중심에 우리 중부교육이 우뚝 서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협력으로 하나가 되는 '서울중심! 세계중심! 중부교육!'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나아가갑시다.

경인년 새해, 중부 교육가족의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중심! 세계중심! 중부교육을 실현하자

존경하는 중부교육가족 여러분 경인년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교육청은 학교장님을 중심으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 속에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환경 개선 등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수준을 한 차원 높였으며 교육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및 교육신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교육청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으며, 으뜸 교육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중부교육발전을 위해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학부모님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에게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해에도 우리 중부교육청은 지난해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서울교육지표인



김정옥 서울중부교육청 교육장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전통과 명문의 숨결이 담긴 세계 속의 중부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시키며, 맞춤형 교수·학습의 내실화로 교실 수업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고실 중심의 모두가 참여하여 신나는 중부영어교육'을 정착시켜 영어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나눔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나눔과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중부교육을 구현함으로써 계층간, 학교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

교육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 성북 지역은 뉴타운 개발로 인한 학교 재건축과 리모델 사업이 많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2월 중 3년의 긴 공사를 끝내 드디어 장위초등학교 재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구 송진초 자리에 28학급의 송곡중학교를 2011년 3월 1일자 개교를 목표로 짓고 있으며 길을 뉴타운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음중학교도 김음초등학교 부지 안에 2012년도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관 사업으로 송덕초, 정수초, 월곡초, 미양초, 수유중, 장위중, 석관중 등이 지어질 예정이며 북악중과 장위중학교에는 학교식당이 꾸며질 예정입니다.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인성과 학력이 어우러진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력과 사랑으로 꿈을 키워가는 으뜸 성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지원 확대, 창의적 인재 육성 위해 노력

지난 2009년도에는 학교장님을 중심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교육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육환경, 학력신장 등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교육제도 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중점적으로 노력할 교육활동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첫째,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평가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또한 교감, 교감선생님들께에서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교원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통해 질 높은 수업이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도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사교육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부진아수를 줄이기 위



신명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장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년에서 찍어고 넘어가야할 기본 학력을 반드시 이루고 가는 학년으로 진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어져 엄청난 향상력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어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사교육비의 주범인 영어교육을 재미있고 즐거운 가운데 회화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 4학년에서는 매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진행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영재교육, 수월성교육을 확대하여 고급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수학, 과학, 미술, 문학, 정보, 영어부문의 영재교육을

대한 대학문화 확대와 외국 명문대 유학의 지속적 증대 등 진학 후 진로 선택이 폭이 넓은 장점을 갖추게 되었다.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트렌드 및 직업가치를 실제로 접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정부와 학교는 다양한 노력으로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한 발짝 앞당겨 주는 전문계고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학교의 모습일 것이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Key가 될 것이다.

전문계고에서 소질과 적성 계발!

우리나라 경제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14위권을 유지하며 계속적인 성장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85%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건강한 사회구조와 유능한 인재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려면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목표를 완화하여 하며, 적기 위해서는 초·중학교 단계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도록

촉하는 혁신적이고 전환적인 사고와 사회구성원 공동체의 동기가 필요하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는 개인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꿈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인재의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전문계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있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또한 우리 사회도 점차 학력보다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으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직업교육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전문계고등학교 모습은 창조적 모험을 즐기고 혁신적 변화를 행동적 실천기를 닦아가고 있다.



강성봉 서울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장

투자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맞춤형 튜너 비커처럼 학교에서는 혁신의 의지를 구체화하여 변화의 중심에 학교와 교사가 앞장서서 교사와 교육전문직의 직무능력신장을 위한 심화 연구, 산·관·학 협약체제, 교육과정 개선 등 교육의 일대 혁신이 결실한다는 판단과 '자율·경쟁'이라는 원칙 아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새 길을 열고 있다.

또한 전문계고 학생에 맞는 교재의 재구성,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다양한 첨단 매체를 활용한 질 높은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의 전문계고는 취업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도 가능한 학교,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학교로 평가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 취업보장과 함께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대학문화 확대와 외국 명문대 유학의 지속적 증대 등 진학 후 진로 선택이 폭이 넓은 장점을 갖추게 되었다.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트렌드 및 직업가치를 실제로 접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정부와 학교는 다양한 노력으로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한 발짝 앞당겨 주는 전문계고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학교의 모습일 것이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Key가 될 것이다.